

전주시, 신생아 중환자 진료 공백 막는다

‘안심 출산 시스템’ 구축… 보건소 등록 임신부 1817명 대상 1:1 전화 상담 통한 산모 건강 상태 확인

전주시가 ‘코드블루’에 직면한 신생아 중환자 진료 공백을 막고,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 출산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핵심 전문인력과 원광대학교병원 신생아실 전임의 사직으로 신생아 중환자 진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안정적인 모자의료 안전망을 다지기 위함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이 달린 대표적 필수 의료 분야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관내 분만의료기관의 임신부는 총 3723명으로 이중 고위험 임신부는 1227명으로 약 33% 정도이다.

먼저 시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1817명을 대상으로 1:1 전화 상담을 통해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 등 임신부의 건강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입



전주시가 ‘코드블루’에 직면한 신생아 중환자 진료 공백을 막고,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함께 준비하는 안심 출산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산·출산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등록 임신부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임신부의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전북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함께 고위험 임신부 등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지역 6개 분만의료기

급 산모 이송에 따른 닥터헬기 이송 지원 등 소방본부·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시민과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직통 전화번호(063-281-6256)를 개설하고, 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 지역 분만의료기관과 긴밀한 상시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권역모자의료센터 안정적 운영 및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도·시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신생아 중환자 진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의료 핵심 영역이자 공공의 책임이 중요한 분야”라며 “세심하고 촘촘한 보건의로 환자를 만듦에 전주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심출산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공정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전주시, 상반기 숨은 세원 13억800만원 발굴·추징

전주시는 공정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상반기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총 514건에 대해 13억8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변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부동산 관련 행정 자료를 연계 분석하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형 세부조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에 집중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공정한 과세 기반을 강화했다.

조사 분야별 실적은 △법인 서면조사 17건, 1억4400만 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183건, 4억3200만 원 △분기별 사례별 조사 267건, 4억1100만 원 △탈루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 47건, 9억2100만 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과세자료 분석과 관계기관 자료 연계,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탈루 취약 분야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청년 주도 정책실험’ 참여팀 모집

전주시가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들이 직접 실행하는 청년 주도 정책실험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다양한 청년 채널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실험으로 연결하고,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청년참여예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지정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 주도 정책실험’ 참여팀을 모집해 진행되며, 기존 자율제안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정책연계형 지정 공모 방식으로 진

행된다.

지정공모 주제는 △세대공감 상호 멘토링 △AI 앱을 활용한 지역생활 문제해결 △청년 재충전·진로 재설계 △전주 청년-외국인 유학생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청년 자율제안 정책 실험 등 5개 분야이다.

또한 기존 청년단체 중심의 참여 방식을 청년 개인과 소그룹(5인 내외)까지 확대하는 등 참여 대상을 유연화해 보다 다양한 청년이 정책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누리집 내 ‘통합신청지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지역 밀착형 정원 문화복지 안착

전주정원문화센터 상반기 방문객 4만5000명 돌파… 프로그램 참여자 1627명 만족도 96.8점

전주시가 일상 속 정원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정주민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올해 상반기 방문객이 4만 5,000명을 넘어섰고, 각종 체험·교육 프로그램에는 1,627명이 참여해 운영 만족도 96.8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단순한 정원 관람을 넘어 체험과 교육 중심의 정원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월 ‘정원문화 활성화 포럼’을 시작으로 계절별 맞춤형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봄철에는 한불 수교 15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정원 특별전을 열고 프랑스 정원 철학 특강과 미래세대를 위한 특화 정원 조성, 반려식물·정원 가꾸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이어 전국의 우수 정원을 찾아가는



전주시 정원문화센터가 일상 속 정원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 상반기 총 4만5000명이 다녀가는 등 지역 밀착형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 탐방’, 정원식물 및 야생화 교육, 식재 디자인 실습 등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민 주도의 참여형 프로그램인 ‘정원 버스킹’은 지역 정원주들의 철학과 노하우를 공공자산으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역 베테랑 정원사 8명이 강연자로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이날 저명 조경가를 초청해 ‘처음 해 보는 정원식재 디자인’을 주제로 북토크도 개최했다. 강연에서는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하는 감각적인 식재 디자인과 식물 관찰 기록법, 반려정원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방법 등이 소개됐으며, 센터는 이를 통해 전국의 정원 애호가들을 잇는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과 정원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여름꽃이 아름답게 피는 시기에 맞춰 정원을 직접 찾아가는 탐방 프로그램과 집에서 쉽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실습형 강좌를 확대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정원탐방’, ‘우리집 정원사’, ‘슬기로운 홈가드닝’, ‘여름철 정원식물과 야생화’, ‘한국 전통 공간과 정원식물’ 등이다.

센터의 실외정원 역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에는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저녁에는 눈꽃과 별, 우주행성 등을 주제로 한 조명이 더해져 가족 단위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힐링 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 남부시장의 미래를 묻다’ 국제포럼 개최

전주남부시장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적인 로컬리티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린다.

백년시장특성화사업단은 23일과 24일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작당’에서 남부시장 국제포럼 ‘전주, 남부시장의 미래를 묻다’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 남부시장, 일상의 가치 발굴과 지역성 탐색’이라는 대주제 하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4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자산을 해석해 줄 해외 석학으로는 모로코 국립 고고학 과학 및 문화유산 연구소(INSAP)의 아메드 스쿤티(Dr. Ahmed Skounti) 교수(2019 전주국제상 수상자)와 일본 오테몬카쿠인대학의 쿠즈니시 리사(Lisa Kuzunishi) 교수, 인도 리투 데시무크(Dr. Ritu G Deshmukh)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무게감을 더한다.

/이만호 기자



지역재투자평가 최우수 등급 최우수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사장님들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은행이 되었습니다.

전북은행